

사 설

국난극복 법회 회향하며

지난 4월부터 우리 불교계는 한국 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단이 주관이 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국난극복을 염원하는 참회대법회를 성공리에 개최해 왔다.

지금까지 여덟 번에 걸쳐 개최된 참회대법회는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를 맞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간절한 참회를 통한 깨우침과 자비의 길을 인도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어려움이 육신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불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가르쳐 준 것이다. 또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으면서 진정한 호국·호법의 의미를 깨우쳐 준 법회였다.

11월 29일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회향은 목포 보현정사에서 이루어졌다. 참회대법회의 마지막인 이날 법회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 가운데 하나인 동서갈등·영·호남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화합의 길을 모색한 소중한 장(場)이었다. 개최지인 목포는 김대중대통령의 연고지인데다가, 이날 영남출신의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하여 영주시장 등 많은 영·호남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여 동서화합으로써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실천의지를 부처님앞에서 보여 주었으니 이 얼마나 뜻 깊고 역사적인 일인가.

법종단직 차원에서 국가와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렇게 꾸준히 여덟 차례에 걸쳐서 참회대법회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은 최근세사의 불교계의 행보로 볼 때 극히 다들스런 일이다.

다른 종교 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불교계의 뜻에 동참하여 나라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난극복 의지를 다지고 화합하여 제2국국을 성취하는데 앞장서게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거로 빛이진 종단의 과열상이 아직 극복되지 못해 종도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불교의 포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많은 국민들이 불교계를 향해 혀를 차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불교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조계종의 불협화음이 장기화되어서는 한국불교에 희망이 없다. 불미스러운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킨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자들은 진정으로 부처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조속히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화합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계종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진정으로 불교와 종도들을 염려한다면 반불교적 사고와 행동을 물리치고 뜻을 하나로 모아 청정승가의 전통을 되살리는 계기를 하루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4년전 개혁정신을 되살려 종헌종법을 수호하면서 올바른 승가정신을 바로 세우야 한다. 대 화합의 지혜를 모아 종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종단 체제를 회복해야 한다. 불교계가 국난의 위기를 참회대법회를 통해 극복하려는 의지를 대외에 전명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처럼 종단의 희망과 안정과 질서를 하루빨리 도모해 여법한 종단의 위상과 화합승가의 본래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승·재가단체 조계종사태에 두 목소리 교계 갈등확산 우려

조계종사태에 대한 승·재가 단체의 입장 표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체간의 입장이 달라 일부 승단의 불화가 자칫 불교전체의 분열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승·재가 단체들이 11월 26, 27일 발표한 성명은 현재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총무원·

정화회의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비구니스님들은 27일 하루 동안 '실천불교 비구니(소장) 모임' '실천자 일동'에선 '정화개혁회의 해산'을, '통림 비구니 동문회'의 6개 단체는 공동명의의 성명서에서 '중정교시 지지'를 밝혔다. '제2차 비구니 정화개혁회의'가 주도해 중정교시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참가단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표했다가 해당 단체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재가단체비상대표회의는 25일 '정화회의 해산'을 주장했다. 반면 전국신도회와 양산불교신앙회 등 11개 불교신앙회는 25일과 22일 각각 '중정교시 봉대'를 주장했다.

또 한 단체 안에서도 입장이

달리 발표되는 경우도 있어 단체 내부의 분열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21일 대법청 서울, 경인 지역 회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종헌종법 유린 세력들의 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법청은 14일 중정교시 봉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가단체에 지지성명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속암이름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가단체 관계자는 "현재 사태에 대해 어느 단체든 자유롭게 입장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일부 스님들의 불화가 승·재가 단체의 분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마치 대리전을 치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3일 동안거 결제

불기 2542년 동안거가 경북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을 비롯 전국 70여 선원에서 3일 일제히 결제에 들어간다. 이날 영축·해인·조계·고불·덕숭총림 방장스님들은 결제법어를 내린다. 이번 동안거는 99년 3월 2일 해제한다.

선임법사회서 인사초안 작성

군순단, 규정등 개정

군순단(단장 이희용)은 11월 2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순단 규정' 및 법당은 영친구를 개정했다.

군법사 인사와 관련, 앞으로는 선임법사회에서 군법사 인사초안을 작성해 육군본부에 제출

키로 했다. 선임법사회는 임관 15년 이상된 15명의 군법사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은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종단보좌관이 군법사 보직 및 장기선발에 관한 인사초안을 작성했다.

군순단은 또 개정된 청규를 통해 모든 군법당이 일정 양식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찰의 모든 재정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비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461명은 11월 26일 '승가대중은 수행과 교화에 전념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불교비로서기 지성인 선언

재가불자 461명 동참 '출가정신 회복' 촉구

조계종 사태와 관련 재가불자들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중서 전 교육개혁위원장, 박광서 우리선우 이사장,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 김재일 통산반야회장, 류시화시인 등 재가불자들은 11월 26일 조계사내 선종다원에서 '불교비로서기를 염원하는 지성인 선언'을 발표했다.

지성인 선언에는 학계, 언론, 출판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의로계, 문인 등 4백61명이 동참해 "종헌종법을 목표로 일부 권승들에 의해 벌어지는 폭력사태의 악순환은 재가불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참회와 무소유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 대중공의와 종헌종법에 의거해 이번 사태를 조속히 원만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1면 '회동'에서 계속

정화회의측은 "본사주지 연합회의 수습안에 전격 동의했는데 종회측이 승려대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역시 대화 의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맞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승려대회를 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화장 수락을 보류한채 대화의 장에 나서고 있는 탄성스님과 합의안을 내놓은 본사주지연합회, 그리고 합의안에 동의한 정화회의와 종립집행부 구성을 통한 선거 재개를 주장하는 중앙총회의의 입장이 엇나간 가운데 4단체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참회로 다시 일어서자" 국민의지 결집

국난극복 전국순회법회 회향 의미

진정한 불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진한다. 6·25 이후 최악의 경제난에 처했다는 오늘의 고통을 간절히 참회하고 발원으로 이겨내려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법회'가 회향했다.

4월부터 을 한해동안 강원도에서 출발해 서울 대전 부산 목포까지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정진과 기원을 해온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는 호국불교 정신의 실천이라는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법회의 의미가 불자를 위한 참회법회인 사회 전체로 확산돼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켰다는 평이다.

이 법회는 과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해 의점을 막고, 승병의

법을 체합해 신병의 폭을 넓혔다고 입을 모았다.

부대행사로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도농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왔다. 설악산 신봉사에 '국민화합 나무'를 심고 진각종 총인원에 '국난극복기원 진언비'를 세워 결연한 의지를 모으기도 했다.

이 법회를 후원한 3당불자회장과 불교언론 3사의 참여 열의도 돋보였다. 각 정당별 불자회의 활동이 이 법회를 통해 두드러졌던 것도 눈여겨 볼만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법을 체합해 신병의 폭을 넓혔다고 입을 모았다.

부대행사로 농·축·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우리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도농간의 이해와 협조를 도왔다. 설악산 신봉사에 '국민화합 나무'를 심고 진각종 총인원에 '국난극복기원 진언비'를 세워 결연한 의지를 모으기도 했다.

이 법회를 후원한 3당불자회장과 불교언론 3사의 참여 열의도 돋보였다. 각 정당별 불자회의 활동이 이 법회를 통해 두드러졌던 것도 눈여겨 볼만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주를 둘러면서 <반야심경>을 외워 주위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특히 전 前대통령은 순천 선암사에서 5·18관련자로부터 날벼락 세례를 받고도 예정된 목포 지역화합법회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지역 화합을 기원하는 목포 화합법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전 前대통령의 신심과, 동서화합만이 국민화합에 이를 수 있다는 목포 지역민들과 불자들의 큰 마음이 부처님 품에서 함께 작용했다는 평이다.

동서화합의 물꼬를 튼 국난극복 참회대법회는 20세기 호국불교의 목을 해냈다는 여론이다. 특히 다른 종교계는 국난극복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벌이지 않는 현실에서 특별히 불교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국민적인 관심을 끈 것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현대만평 박우원

화합들 하시죠

**봉**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행**

일시 : 불기 2542년 11월 30일(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대웅전

·종명: 서용  
·고문: 관응 고승 해암 비룡 운경 도천 석주 종산 원담 응담 벽암 도천 일타 성수 행원 청하 탄성 지유 정천 지종 녹원 도원 정영 보성 청화

·대회장: 탄성

·지도위원: 고산 능가 광덕 지관 덕평 밀운 정락 해산 벽파 이두 해정 법정 대정 원주  
법흥 화엄 도성 인환 종근 봉우 정월운 정대 향운 현해 정원서 법장 설정  
성덕 정무 도한 정관 종근 봉우 정월운 정대 향운 현해 정원서 법장 설정  
성덕 정무 도한 정관 종근 봉우 정월운 정대 향운 현해 정원서 법장 설정  
성덕 정무 도한 정관 종근 봉우 정월운 정대 향운 현해 정원서 법장 설정

·공동 집행위원장: 법장(본사주지연합회장)·법등(중앙총회의장)·지선(백양사 주지)

·공동 집행위원: 영담 지명 정효 지학 지홍 여연 대원 중수 일철 현각 일화 해운 종호 금강 하림 지명 원명 혜용 부경 덕영

·대변인: 향적

·부대변인: 법민

·외호: 우리는 선우/ 대법원총동문회/ 전국교사불자회/ 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 대법청 서울지부/ 대법청 경기지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 봉은사신도회/ 석왕사신도회/ 금강정사신도회/ 대각사정년회/ 서울불교정년회/ 수원불교정년회/ 중앙총무기관원우회/ 대법원 전안지부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대회장 탄성